

탐구학습을 위한 학교문법의 어말 어미 체계 재고찰

김 홍 범

□ 차 례

1. 머리말
2. 어말 어미의 체계
 - 2.1. 종결 어미의 체계
 - 2.2. 연결 어미의 체계
 - 2.3. 전성 어미의 체계
3. 맺음말

1. 머리말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탐구 학습을 “경험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 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학습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탐구 학습은 체계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학습 방법으로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새로운 직관을 얻는 것,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탐구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습자 스스로가 강한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탐구 학습을 수행할 때 교사가 취할 역할과 태도는 살아있는 언어 탐구 자료와 의문들을 다양하게 수집, 제공하며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인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대립되는 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

을 수 있는 주제도 오히려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¹⁾(교사용 지도서 2002 : 16~24)

현행 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로 탐구 학습을 진행할 때 부분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문법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교과서의 내용이 단순히 암기하는 문법 교육에서 탈피하여 생각하는 문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문법 교과서의 기본 방향이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학생들이 탐구의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생산적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문법 교과서의 내용은 쉬워야 하며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많은 문법 지식을 나열하여 소개하는 것 보다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탐구 학습의 실현이야말로 문법교육이 우리 생활과 겹돌지 않고 언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문법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탐구 과제가 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어말 어미의 체계

2.1. 종결 어미의 체계

-
- 1) 김광해(1992)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은 어떠한 명확한 해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사는 쓸데없이 부끄러워하거나 고민하고, 학생들은 또한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부단히 요구하는 답답한 상황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문법 수업의 바람직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가령 ‘이다’나 ‘보어’ 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이 현재의 문법 수업과 탐구 학습이 크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1.1.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는 상대 높임법에 따라 격식체의 ‘-구려, -구먼, -구나’, 비격식체의 ‘-아, -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음의 ‘-네, -군, -어라, -은지(-는지)’와 같은 어미도 감탄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 어미의 경우 ‘-구려’가 감탄법뿐만 아니라 명령법으로도 쓰이는 것은 기술하면서 ‘-네’는 평서법의 어미로, ‘-어라’는 명령법의 어미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방식으로는 종결 어미의 표현 기능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 다음의 보기와 같이 이미 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어미 ‘-네, -군, -어라’ 등은 동일한 형태가 다양한 표현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네 : 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감탄하여 말할 때 쓴다.²⁾

예) 수미가 오늘은 벌써 왔네.

② 화자가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반말로 나타낸다.

예) 내일 자네 집으로 가겠네.

③ 화자가 추측한 것을 청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쓴다.

예) 우리 이제 놀러 가도 되네?

-군 : ① 새롭게 안 사실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예) 한 동네에 사는 걸 몰랐군.

② 새롭게 안 사실에 대해 확인하려는 의문을 나타낸다.

예) 슈퍼에 갔다 오는군?

-어라¹ : ① 손아랫 사람에게 명령하는 뜻을 나타낸다.

예) 그것 좀 이리 쥐라.

② (명령하는 뜻보다는)그리 되기를 소망하거나 기원함을 나타낸다.

예) 올해는 더 예뻐져라.

-어라² :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예) 아이구 좋아라!

-은지(-는지) :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2) 한국어 학습 사전(2003)에서 표제어의 의미 항목 중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따온 것임.

예) 시장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오랜만에 너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2.1.2. 융합 형태 어미

문법 교과서에는 단순 형태의 종결 어미만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다면서, -다고, -다니, -다는데, -다니까’등의 융합 형태 어미도 종결 어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어미 ‘-다면서’가 서법에 따라 ‘-냐면서, -자면서, -라면서’로 확대되는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면서¹ : ① 다른 곳에서 들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할 때 쓴다.

예) 남산이 단풍이 아주 예쁘다면서?

② 상대방이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 비난하듯이 말하는 뜻을 나타낸다.

예) 오늘도 바쁘다면서? 왜 놀고 있어?

-다면서² : ‘어떠한 사실을 말하면서’의 뜻을 나타낸다.

예) 그는 피곤하다면서 먼저 집으로 가버렸다.

-다고 : 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전달할 때 쓴다.

예) 미션이가 그러는데 그 가게는 물건이 비싸다고 하더라.

②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무엇으로’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저도 이번 기회에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③ ‘-다고 하여’의 뜻으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예) 어젯밤에 늦게 돌아왔다고 엄마에게 혼났다.

④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듯이 물어볼을 나타낸다.

예) 우리 반이 우승했다고?

⑤ 화자가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할 때 쓴다.

예) 난 또 네가 밥을 먹었다고. 아직까지 안 먹고 뭐했어.

-단다 :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친근하게 말할 때 쓴다.

예) 여기엔 내가 직접 쓴 글도 많단다.

위의 자료를 보면 종결 어미 ‘-다면서’¹⁾의 경우 2개의 의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용법까지 소개하지는 않더라도 어미 ‘-다고’와 같이 의미 항목 ④와 ⑤가 서로 다른 서법으로 쓰일 때는 이러한 살아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2.1.3. 연결 어미의 종결 어미적 쓰임

다음의 ‘-거든, -려고, -도록’과 같은 연결 어미는 전성 어미(부사형 어미)로도 쓰인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 7차 교육 과정에 반영되었지만, 이러한 어미들을 종속적 연결 어미로 볼 것인가, 부사형 어미로 볼 것인가의 논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미들이 종결 어미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사실이 기술 되어야 한다.³⁾

-거든 : ① 어떤 일의 이유를 나타내는 ‘-단 말이야’의 뜻을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를 밝힐 때 쓰는데 말 끝에서는 억양이 내려간다.

예) 그 정도로 공부해서는 안돼. 시험이 좀 어렵거든.

②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단 말이야, 그래서’의 뜻을 나타낸다. 어떤 사실이 조건이 되어서 다음 사실이 전개될 때 쓰는데 보통 말끝을 올리면서 말한다.

예)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거든. 한턱낼게.

-려고 : ①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물어 볼 때 쓴다.

예) 밥 다 되었는데 어디 가려고?

② 설마 그럴리는 없음을 강조하며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내 짝이 없으려고?

③ 물어 보는 뜻 없이 사태가 그리될 까 염려함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렇게 물을 많이 먹고 자다 오줌 싸면 어찌려고?

-도록 : 명령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쓴다.

3) 연결 어미가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것은 주로 도치와 생략의 과정을 통해서이다. 연결 어미가 종결 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주로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질 때이며, 선행절과 후행절이 시간적 선후 관계나 논리적인 인과 관계를 나타낼 경우 도치에 의한 종결 어미화가 불가능하다.(유현경 (2003))

예) 내일까지 모두 신청서를 내도록.

위와 같은 어미들의 다양한 쓰임을 소개함으로써 조사나 다른 문법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어미들도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표현 기능을 갖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라 일대다 대응 관계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 연결 어미의 체계

2.2.1. 단어 연결 어미

학교 문법에서는 연결 어미를 대등 연결 어미와 종속 연결 어미 그리고 보조적 연결 어미로 분류하고 있어, 다음의 예 (1)~(5)의 ‘-어다, -나, -디, -고, -어’와 같은 어미들은 연결 어미의 어느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미들을 어떤 문법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노대규(1998)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 어미를 단어 연결 어미와 문장 연결 어미, 그리고 보조적 연결 어미로 분류한 후에 단어 연결 어미와 문장 연결 어미를 각각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로 다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1) -어다 : 올라다보다, 내려다보다, 쳐다보다, 들여다보다, 바라다보다
- (2) -나 : 크나크다, 머나멀다, 기나길다
- (3) -디 : 쓰디쓰다, 차디차다, 짙디짙다, 맑디맑다, 곱디곱다
- (4) -고 : 타고나다, 놀고먹다, 먹고살다, 싸고돌다, 파고들다
- (5) -어 : 알아보다, 뛰어나다, 잡아먹다, 접어들다, 떠맡다

노대규(1998)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의 예문 (6)~(8)에 쓰인 어미 ‘-고’는 각각 단어 연결 어미, 문장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로 범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위의 (1)~(5)의 단어 연결 어미들도 대등 연결 어미 ‘-나, -디’와 종속 연결 어미 ‘-어다’로 하위 분

류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어미들을 단어의 끝에 분포되는 어말 어미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⁴⁾ 이러한 어미들은 단어의 끝자리에 분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어말어미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합성어의 구성요소도 단어로 해석하는 관용을 배품으로써 해결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

- (6) 그는 건강을 타고난 체질이다. <단어 연결 어미>
- (7) 한국의 여름은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온다. <문장 연결 어미>
- (8)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보조적 연결 어미>

2.2.2. 보조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는 ‘-고 싶다’의 ‘-고’처럼 본 용언을 보조 용언에 이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보조적 연결 어미로는 ‘-아, -게, -지, -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다음의 예문 (9)~(10)를 보면 ‘보다 보니’의 ‘-다’, ‘-볼까 봐’의 ‘-ㄴ까’도 보조적 연결 어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9) 텔레비전을 보다보니 어느새 자정이 되었다.
- (10) 그 편지를 누가 볼까 봐 그러니?

따라서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다음의 예문 (11)~(16)에서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주는 어미들도 모두 보조적 연결 어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단어 연결 어미들에 의해 결합된 단어를 이미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단어 연결 어미들이 쓰이는 경우를 합성어 구조로 볼 것인지, 이은말 구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석득(1992) 참조.

- (11) 어젯밤에 잠을 못 자나 봐요?
- (12)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 (13) 동생이 엄마에게 모두 일러 바쳤다.
- (14)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 (15) 오늘 일은 그만 액뻔한 셈치자.
- (16) 그는 너무 약아 빠져서 주위에 친구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문 (11)~(16)에 쓰인 용언 ‘보다, 바치다, 뻔하다, 셈치다, 빠지다’를 보조 용언으로 인정할 경우 예문 (14)의 어미 ‘-(으)ㄴ’과 예문 (15)의 어미 ‘-(으)ㄴ’도 보조적 연결 어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뻔하다’와, ‘셈치다’를 의존명사 ‘뻔’과 ‘셈’으로 분석할 경우는 보조적 연결 어미의 범주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보조적 연결 어미를 단순히 ‘-아, -게, -지, -고’로 한정시키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닌 ‘지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보조적 연결 어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 용언의 개념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친 후에 학습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적 연결 어미의 범주는 결국 보조 용언의 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3. 전성 어미가 포함된 연결 형식

이어진 문장은 홑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종래에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된 경우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절 곧 종속절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종속절에는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이 명사절과 관형절로 된 유형도 많다는 것을 주의해서 지도해야 한다.

- (17)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
- (18)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
- (19) 비가 오는 중에, 가끔 번개가 쳤다.

이어진 문장은 연결 어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위에서 제시한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경우 연결 방식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즉 다음의 예문 (20)에서 종속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종속절 안에 명사절이 안긴 것인지, 명사형 어미 ‘-기’가 ‘때문에’와 결합하여 연결 형식으로 바뀌어 종속절 또는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음의 예문 (20)도 마찬가지이다. ‘빨래하는 김에’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데, 종속절 안에 관형절이 안긴 것인지 관형사형 어미 ‘-는’에 의존명사 ‘김’과 조사 ‘에’가 결합하여 연결 형식을 형성한 후 이것이 종속절 또는 부사절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문을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 가. 기 위하여 :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
 나. 기 전에 :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다. 기 무섭게 :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다.
 라. 기는 커녕 : 생일날에 선물을 받기는 커녕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마. 기만 하다 :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전화를 걸어 보세요.
 바. 기는 고사하고 : 장학금을 타기는 고사하고 학사 경고를 받았다.
 사. 는 김에 : 빨래하는 김에 다림질도 해라.
 오. 는 길에 :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먹을 것을 사왔다.
 자. 는 대로 : 그림 퇴근하는 대로 같이 가 보자.
 차. 는 동안 : 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남편은 신문을 봤다.
 카. 는 바람에 :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다 젖었어요.
 테. 는 한 : 네가 그렇게 하는 한 나도 널 용서해 줄 수는 없어.
 표. 는 이상 : 네가 그렇게 나오느니 이상 나도 더 이상 너를 위해 일을 해 줄 수는 없어.
 해. 는 사이에 : 내가 공부를 하는 사이에 눈이 왔다.

위와 같은 문장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 (21)~

(22)와 같은 문장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는 작업이 문법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일이며, 탐구 학습의 수단이기도 하다.

(21) 집에 가자마자 전화해라.

(22) 집에 가는 대로 전화해라.

예문 (21)은 어미 ‘-자마자’에 의해 종속절이나 부사절을 형성하는 문장이지만 예문 (22)의 ‘-는 대로’에 대한 문법적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접근 방식을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지만, 김광해(1992)에서 주장하는 바가 탐구 학습의 기본 방향으로선 옳다고 본다. 즉 탐구 학습에서 그 탐구의 열쇠가 되는 의문들은 학계에 서조차도 아직 엄밀하게 정리되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3. 전성어미의 체계

2.3.1. 관형사형 어미

다음의 예문 (23ㄱ)의 ‘빨간’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며, 예문 (23ㄴ)과 같이 서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절로 인정하고 있다. 즉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장미가 빨갳다’라는 문장에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24ㄱ)~(26ㄱ)의 관형어 ‘무거운, 가벼운, 새빨간’은 예문 (24ㄴ)~(26ㄴ)에서 보듯이 서술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이라 할 수 없다.

(23) ㄱ. 담 옆에 빨간 장미가 피었다.

ㄴ. 장미가 빨갳다.

(24) ㄱ. 방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 ㄴ. *침묵이 무겁다.
 (25) ㄱ. 양쪽 대표가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으며 토론에 들어갔다.
 ㄴ. *농담이 가볍다.
 (26) ㄱ. 너는 어째서 밤낮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다니니?
 ㄴ. *거짓말이 새빨갳다.

용언을 관형사와 같은 꾸밈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바꾸었으므로 예문 (24ㄱ)~(26ㄱ)의 어미 ‘-(으)ㄴ’은 관형사형 어미임에는 틀림없으나 절을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예문 (23ㄱ)의 어미 ‘-(으)ㄴ’과는 문법적 지위가 다르다. 전성 어미에는 관형사형 어미이외에도 명사형 어미와 부사형 어미가 있으며, 이러한 어미들은 용언 자체만의 기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합된 절 전체를 전성시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전성 어미에는 용언 자체만을 전성시키는 전성 어미와 절 전체를 전성시키는 전성 어미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분류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더 설명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다. 절을 전성시키지 못하고 단어(용언)만을 전성시키는 유형의 예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 (27) ㄱ. 피나는 노력 → *노력이 피나다
 ㄴ. 팔목할 성장 → *설장이 팔목하다
 ㄷ. 사람된 도리 → *도리가 사람되다
 ㄹ. 뽕족한 방법 → *방법이 뽕족하다
 ㅁ. 가벼운 대화 → *대화가 가볍다
 ㅂ. 무구한 시민 → *시민이 무구하다
 ㅅ. 배부른 소리 → *소리가 배부르다
 ㅇ. 쓸데없는 농담 → *농담이 쓸데없다
 ㅈ. 아낌없는 찬사 → *찬사가 아낌없다
 ㅊ. 시퍼런 증오심 → *증오심이 시퍼렇다
 ㅋ. 심심한 사의 → *사의가 심심하다
 ㅌ. 뜨거운 박수 → *박수가 뜨겁다
 ㅍ. 새까만 후배 → *후배가 새까맣다

ㅎ. 깊은 감동 → *감동이 깊다

위의 예문 (27)에 나타나는 관형어들은 모두 용언에 결합되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약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관형절을 형성하는 관형사형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 있는 반면에 절을 형성하지 못하는 위의 예들에서의 관형사형 어미는 어떤 선어말 어미의 결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부사형 어미

다음의 예문 (28)의 ‘아름답게’는 용언으로 부사어의 기능을 하지만 ‘꽃이 아름답다’와 같이 서술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절로 인정하고 있다. 즉 부사형 어미 ‘-게’가 ‘꽃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에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부사어와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어 ‘꽃이’는 바깥 문장의 주어 ‘꽃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예문 (29)의 부사어 ‘지루하게’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이라 할 수 없다. 부사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미 ‘-게’를 부사형 어미라고는 할 수 있으나 절을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예문 (28)의 어미 ‘-게’와는 문법적 지위가 분명히 다르다.

(28)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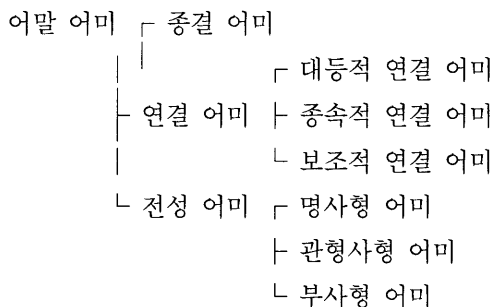
(29) 비가 지루하게 내린다.

따라서 앞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단어 전성 어미와 문장 전성 어미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듯이 부사형 어미도 단어 전성 어미와 문장 전성 어미로 분류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 절을 이끌지 못하고 즉 절을 전성시키지 못하고 단어(용언)만을 전성시키는 유형의 예를 더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0) 이번 노사협상에서 노조측은 크게 양보했다.
 (31) 날씨가 미치게 덥다.
 (32) 나는 약속을 까맣게 잊었다.
 (33)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하얗게 밤을 새웠다.
 (34) 북한 핵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예문 (30)~(34)에 쓰인 ‘크게, 미치게, 까맣게, 하얗게, 깨끗하게’는 위의 예문 (29)에 쓰인 ‘지루하게’와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서술어의 기능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어미 ‘-게’는 단어 전성 어미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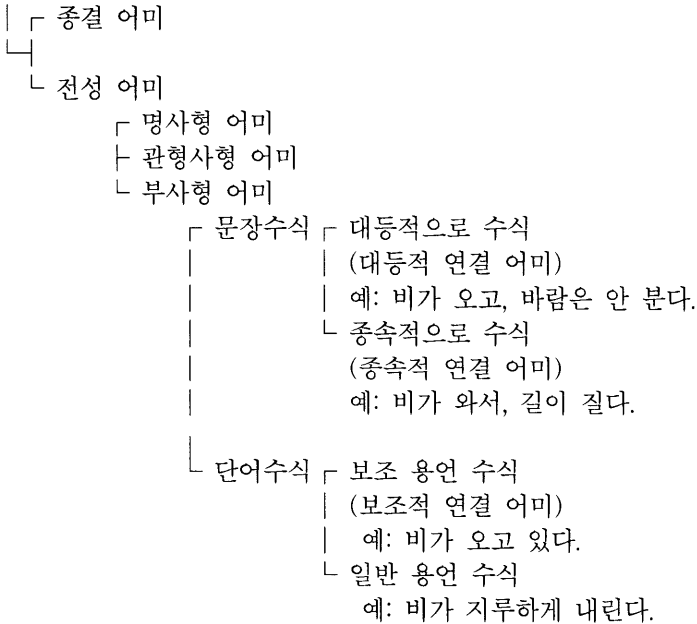
7차 문법 교과서는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여 어말 어미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종속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보고 대등 연결 어미까지도 부사형 어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즉 어말 어미 체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학계에서 지적되었듯이 본 용언이 보조 용언을 수식한다는 것은 무리한 설명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말하는 일반 용언 수식 부사어가 절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언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용언 수식의 부사어는 문법적 지위가 다른 두 종류가 있으므로 이를 단어 전성

부사형 어미와 문장 전성 부사형 어미로 분류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종류의 부사형 어미를 동일한 범주로 묶을 경우에는 부사어가 포함된 문장이 홀문장 인지 겹문장 인지를 판별하는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용 지도서의 어말 어미 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말 어미



3. 맺음말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간략히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탄형 어미를 예로 들어 검토해 보았듯이, 하나의 형태와 기능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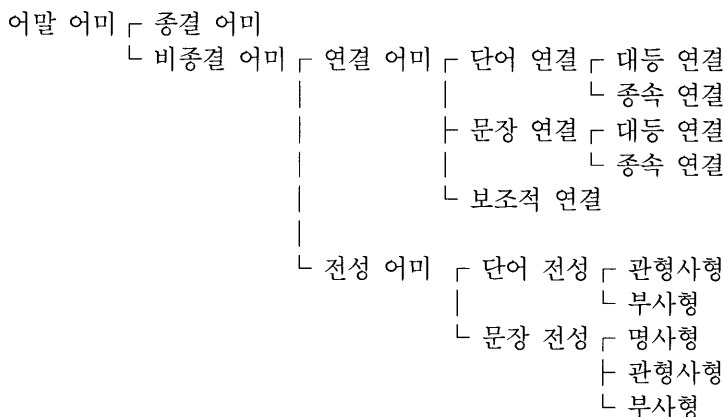
둘째, 융합 형태 어미와 연결 어미 중 일부도 종결 어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연결 구로 이루어진 연결 형식에 대해서 문법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넷째, 보조적 연결 어미의 층위와 목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를 하위 분류 할 때 각각 단어와 문장 차 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따라서 연결 어미는 단어 연결 어미와 문장 연결 어미로 전성 어미는 단어 전성 어미와 문장 전성 어미로 분류할 것을 제안 하였다. 또 단어 전성 어미의 범주에 명사형 어미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파생과 굴곡의 경계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검토의 결과가 문법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탐구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바를 종합하여 어말 어미 체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글 쓴 이: 김홍범

소 속: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hbkim1960@hanmail.net

논문 접수: 2004. 10. 20.

게재 결정: 2004. 11. 20.

□ 참고 문헌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2ㄱ),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2002ㄴ),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선청어문』 20, 서울대 국어교육과, 81~102쪽.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탐출판사.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기능, 『말』 12, 연세대 한국어학당, 71~92쪽.
- 김홍범(2003), 7차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어말 어미 체계의 문제점, 『교육연구』 11, 한남대 교육연구소.
- 남기심, 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 탐출판사.
- 남기심(2001), 『현대 국어 통사론』, 태학사.
- 노대규(1998), ‘-어다’형태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 한국어의미학, 215~236쪽.
- 서상규·김홍범 외 (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 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 문법 교육학회 제 1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109~122쪽.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 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호, 한글학회, 123~148쪽.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이관규(2000), 제7차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법 내용적 특징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제14집, 국어교육학회, 321~355쪽.
- 이양혜(2000), 『국어의 과생접사화 연구』, 박이정.

<Abstract>

A Study of the Word final endings in the School Grammar for Inquiry study

Kim Hong-beo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word ending system in school grammar and point out some problems in the system. Word ending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 sentence closers, connectors, and category changing endings. Sometimes, exclamative endings can be used as a sentence closer with a different function. It is also claimed in this paper that merger type endings and some of the connectors should be regarded as sentence closers and that we need to postulate a new type of endings which we may call words connecting ending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also leads us to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list of complementary connectors. We have to also account for the connecting types by various forms of different connecting phrases. Also proposed in this paper is that the category changing endings be classified into two forms - word category changing and sentence type changing. For inquiry study to be effective, the observations made in this paper will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grammar books.

주제어: 어말 어미, 종결 어미, 단어 연결 어미, 문장 연결 어미, 단어 전성 어미, 문장 전성 어미

word final endings, sentence enders, word connecting endings,
sentence connecting endings, word category changing ending,
sentence type changing ending